

<문제 1질문>

보시다시피 연대에서 발표한 답안이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쓴 답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써나갔는데요.; 일단 '사회규범'이 제시문 (나)에서 '언어규범'으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를 '언어규범의 파괴'를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시문 (가-1)과 (가-2)를 읽고 '사회 규범'이라는 단어에만 꽂혀서 제시문 (나)도 그냥 이러한 단어들만 사회 규범에 미치는 영향 즉, 사회적 효용성? 외재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는데 이러한 접근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연세대 문제는 정답이 정해진 문제라 하나의 해설만 존재한다고 하고, 누구는 논리적으로 타당하기만 하면 맞게 해준다고 하는데....만약 위의 답안처럼 연대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답안의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했으나, 나름의 논리를 기반으로 글을 썼을 때, 연세대는 이러한 답안들을 모두 오답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 점수를 주는지.. 점수를 준다면 논리적 비약과 타당한 논리가 어느 기준으로 나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글을 쓰면서 스스로가 채득하는 수밖에 없나요?

<문제 1 질문 답변>

외재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첨삭에서도 논했지만, 발문에서 요구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한 오답입니다. 이런 논리는 오답으로 처리되며,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답안을 맞추는 학생이 적기에 오답도 논리가 충분하다면 합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출문제는 난이도가 下로 답을 맞추지 못했다면 합격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논리가 정답이 되느냐 오답이 되느냐는, 발문에 근거해야 합니다.

<나머지 질문>

1. 답안을 쓰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임 'B국의 경우 1999년과 2008년 사이에 생략된 통계치들에 대해 어떻게 봐야하나?' 1999년과 2008년 두 통계만 보고 B국의 지원율이 10년동안 변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1999년도와 2008년도만 똑같이 그 사이 시기는 A국처럼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러한 고민 때문에 처음에 개요를 짤 때 B국에 대해 제시된 통계 사이의 년도들에 대해 변화가 없었다고 전제하는 것과 변화가 있었다고 전제하는 것 두가지로 나누어 서술해줘야 하는지 고민했음....아무리 봐도 B국이 A국처럼 변화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B국이 10년동안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지어 말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제시문 (라)는 A와 B를 비교하려면 1999년과 2008년만 가지고 해야하는 것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B국이 2000년부터 2007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으면 B국은 10년동안 변화가 없었다고 즉, 사회 규범이나 인식이 개방화되지 않았다고 말할수 없지 않은가?

답변 - 생략된 통계치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은 A국과 대조하여 보는 것이므로 변화가 없다고 보고, 그뒤에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는 중간의 시간이 비어 있기에 완벽하게 고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10년후의 결과가 같으므로 고정없음으로 봐야한다.' 한 문장 추가하면 됩니다.

2.답안의 전체적 논지와 어긋나는 통계수치들은 아예 언급을 안하고 무시해도 되나요? 예를 들자면 2003년 A국의 여성 지원율이 줄었고 2006년 A국의 총 지원자수도 줄었는데 이걸 답안 쓸 때 언급을 해주어야 하나요?

답변 - 네, 사실상 큰 언급 필요 없고, 언급하시고 싶으시면 1번 답변과 같이 추가로 이런 부분은 사회가 진보, 보수화 되는 변화를 중간에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서술하면 됩니다.

3. 다른 분들 첨삭해주신 것을 잠깐 봤는데요...(다)랑 (라)를 연결지을 때 한국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설명을 하셨는데...제시문 (다)만 보고는 한국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막 써줘도 괜찮나요? 제시문 (다)에는 '한국은 그냥 마약이 금지다'라고만 되어있지 '예전부터 쪽 금지였고 앞으로도 계속 금지일 것이다'라는 논지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 1에서도 질문 드렸지만 어디까지가 논리적 비약이고 어디까지가 논리적 추론인건지 감이 안잡히네요.....

답변 - 한국은 변화가 없죠, 마리화나에 대해서 예전에도 지금도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금지이고, 이와 대조적으로 네덜란드와 미국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미래시점으로 생각하시면 왜 미국과 네덜란드도 후에 유지될 수 있으니까 변화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안보시나요? 제시문의 나온 현재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미래는 안나왔으므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시문의 나온 내용까지 FACT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4. 대치동에 있는 모학원을 잠깐 다니면서 연대 논술을 준비했었는데...거기 계신 선생님께서 연대논술은 다면사고형이기 때문에 분석이 한방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통계나 그림을 A로 봤다면 완전 반대로 B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다른 학생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내면적인, 역설적인 (?) 서술을 답안에 제대로만 써낸다면 플러스 점수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시기에...(예를들면 2013 인문의 경우 물방울 무늬 다이아몬드를 인공미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방울'이라는 점에서 자연미로도 볼 수 있다!라든지....) 3번째 문단은 그러한 방향에서 한번 써봤습니다만...쓰고나서 생각해보니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써주는 것도 괜찮은가요? 다른분 쓴걸보니 대부분이 하나의 논지로 답안을 써내려가셨고 님이 다른분 첨삭해주신 것도 보니 앞문단과 반대의 분석을 한 답안에 대해서 자가당착이라는 표현을 쓰시기에...;

답변 - 네, 플러스 점수가 1번 2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근데 말그대로 '플러스'점수지. 합격하려면 이 문제와 같이 지나치게 쉬운 시험을 제외하고는 '답안 만'이라도 잡는 학생이 드뭅니다. 지금 실력이 합격에 안정적인 편은 아니니,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마세요.

2013 답안을 보지 못해서 제가 평가드릴 순 없어요!